

#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김훈순\*\*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젠더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을 선호하는 사회면의 범죄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다. 일화 중심 프레임의 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이밍 기제들은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필자의 거부장적인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의 특성은 선정성 부각과 함께 사회구조 탓하기와 구체적 대안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피살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이 비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과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신문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거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키워드: 뉴스프레임, 범죄뉴스, 신문, 젠더담론

---

\*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도와준 문지영과 김은정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hoonsoon@ewha.ac.kr.

## 1. 문제제기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뉴스는 개개인에게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외부세계의 현실을 인지하게 하는 창구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뉴스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치며 선별적으로 뉴스가치가 결정되며, 선택과 배제, 강조와 해석 등의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는 투명한 창문이 아닌, 뉴스조직에 의해 구성되는 현실이며, 그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잣대와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뉴스의 담론은 특정한 시각에 의해 생산되며, 이러한 대부분의 담론은 주류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자들은 가부장적인 성의 상징질서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서 매스미디어를 주목해왔다. 특히 뉴스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현실세계의 상을 구성하며, 이러한 뉴스가 표상하는 젠더구조는 우리사회의 젠더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합’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김훈순, 1999). 더욱이 최근 신문을 비롯해 뉴스를 다루고 있는 대중매체의 과열된 상업화는 사회의 약자인 여성 관련 보도의 선정성 수위를 높이며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다루는 뉴스의 잣대와 틀, 특정한 시각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90년대 이래 포화상태에 이른 독자시장과 제한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이는 언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상업주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뉴스매체로 독보적이었던 신문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방송뉴스와 인터넷 뉴스매체는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상업화를 부추겼다. 보도의 개인화,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 선정적인 묘사와 이야기로 대변되는 신문의 상업화는 선정주

의로 이어져 공공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 대신 흥미위주의 기사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가십성의 연성뉴스나, 정치인과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의 증가, 성범죄 보도의 증가는 언론의 상업적인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을 다루는 보도에서 더 빈번하게 드러난다.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아직까지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신문이 상업화를 위한 전략으로 여성을 다루는 것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연구는 신문 사회면의 여성관련 범죄보도 특히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뉴스의 프레임분석(frame analysis)을 통하여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으로서 뉴스가 여성을 어떻게 표상하며 그 의미를 어떻게 틀짓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다양한 뉴스 매체 가운데 신문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전통적 뉴스 매체로서의 공신력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시간 내에 영상과 함께 보도를 해야 하는 텔레비전에 비해 신문은 보다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뉴스에 비쳐지는 여성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객관성이라는 뉴스의 틀 이면에 숨겨진 젠더담론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와 정치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두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회면 기사<sup>1)</sup>에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묘사되는 방식이 어떤 프레임(frame)에 의해 틀지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범죄 뉴스의 프레임을 통해 생산되는 여성 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과 가치관을 부분적으로나마 짚어보고

1) 시의성이 중요한 범죄뉴스가 주로 실리는 사회면은 신속한 가치 판단과 기사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자 내면에 자리 잡은 여성권과 조직 내의 관행을 관찰하기 쉬운 대상으로 생각된다.

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모습을 틀짓는 뉴스의 구체적인 패턴을 추적하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 사회의 공고한 가부장적인 젠더 재현체계의 균열과 해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피해자로 다루는 범죄기사의 뉴스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범죄뉴스에서 드러나는 여성피해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프레임 기제(frame devices)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오랫동안 후속보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뉴스 프레임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프레임의 변화/지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서로 다른 정치성을 지향하는 두 신문의 젠더담론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범죄뉴스의 젠더 프레임의 기저에 있는 지배적 가치체계와 그러한 가치체계를 존속시키는 맥락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여성관련 범죄뉴스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뉴스 프레임의 담론적 권력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 2. 범죄뉴스와 프레임의 담론권력

### 1) 범죄뉴스와 여성

많은 선행연구들은 뉴스에는 일정한 전형성이 존재하며, 그러한 전형성은 주류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뉴스는 “명백한 주물 틀(obvious templates)”을 갖고 있고(Oliver & Meyers, 1999), “사전각본(ready-made script)”이 존재한다(Gilliam & Iyengar, 2000). 주물틀과 사전각본이 지칭하는 것은 곧 고정화된 프레임을 뜻하며,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뉴스는 사회적으로 틀지워진 담론을 반복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뉴스의 담론 역시 특정한 틀로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

일단 뉴스에 등장하는 여성의 빈도는 매우 낮다. 뉴스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뉴스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뉴스를 생산해내는 뉴스 조직의 앵커와 리포터 등에서도 명백하게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뉴스 생산자들이 다루는 뉴스원도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Tuchman 1978; Holland, 1987; van Zoonen, 1988; Rakow & Kranich, 1991; Zoch and Turk, 1998; Gilliam and Iyengar, 2000).

특히 뉴스 중에서도 범죄보도의 경우에 남녀간의 뚜렷한 프레임 차이가 드러난다. 범죄보도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와 관련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명백한 힘의 불균형과 균열을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이다. 대부분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여성은 피해자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범죄보도의 뉴스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비정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상적이거나 “정상적”인 범죄·살인은 기자와 편집자들에게 큰 뉴스가치를 갖지 못한다(Lundman, 2003). 그러나 또한 ‘상식’에 기반한 스테레오 타입이 기자들의 뉴스 생산에서 큰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건 보도에는 전형성과 비정상성이라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미묘하게 작용하면서 때로는 증폭되고 상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체로 미국에서 백인 희생자와 흑인 범죄자가 등장하는 사건은 가장 뉴스가치가 높는데, 이는 인종차별주의와 흑인범죄에 관한 백인들의 두려움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Madison, 2001). 마찬가지로 남성 범죄자와 여성 희생자의 구도는, ‘공격적인 남성과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남성주의 색시즘에 의해 사전 각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뉴스가치가 높으며,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뉴스가치가 낮다. 이는 성적 스테레오 타입에 근거한 허용된 가정에 위반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를 다룰 만한 사전 각분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다(Meyers, 1997; Oliver and Meyers, 1999; Madison, 2001).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절하와 관심 부족이 나타나는 가운데, 남성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보도방식 또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신문의 강간 보도를 연구한 연구자들(Lemart, 1989; Schwengels & Lemert, 1986)은 살인이나 폭행에 비해 강간 기사는 보도의 비중이 높지 않고, 다뤄지는 경우라도 다른 범죄에 비해 디테일한 묘사가 적으며, 사회적 범죄로서 심각하게 조명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범죄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뉴스는 여성을 비난한다는 점이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에 관한 칼(Carl, 2003)<sup>2)</sup>의 연구는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사건의 의미 축소를 밝히고 있다. 페이지로우(Pagelow, 1981)는 이러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대해 “여성에게 왜 맞거나 강간을 당했는지에 대한 관심과, 남성이 왜 강도를 당했는지에 대한 무관심은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남성 가해자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인다. 칼(1999)은 남녀가해자에 대한 보도연구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신문의 접근 방식이 젠더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남편이 부인을 쏜 사건에서는 ‘분노’나 ‘위협’ 등 범죄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넣고 있지만, 부인이 남편을 쏜 경우, “총을 든 무서운 마누라(Blasted spouse with shotgun)”라는 헤드라인으로써 단지 충격적인 범죄의 발생 사실만 말할 뿐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이유 있는 남성의 범행과 이유가 필요 없는

---

2) 2000년 6월 11일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벌어진 Puerto Rican Day 퍼레이드에서, 약 60명의 남성들이 최소한 48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남성들은 공격적으로 여성들에게 물을 뿌려대었고, 급기야는 길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기자들과 경찰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 사건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는 일탈적인 범죄자 한두 명의 행동이 아닌 다수의 남성군중에 의해 벌어진 현상으로, 성범죄의 근간에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암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희생자들이 왜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하지 않았는지 반문하며 여성들을 질책했으며, 이 사건을 지켜본 남성 군중들이 왜 아무도 911에 연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의 범행이야말로 신문보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성적인 편견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01년 6월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 5살짜리 아들을 죽인 예이츠(Yates)의 사례는 비정한 모성으로서 국제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같은 해 5월, 이혼한 전부인과의 통화에서 자기의 험담을 하는 두 딸을 난사한 바타그리아(Battaglia) 사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처럼 가해자로서의 여성을 보도하는 방식은 미국에서조차 자애로운 어머니와 현숙한 부인이라는 현모양처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보도를 연구한 안토노풀로(Antonopoulou, 2003)는 남성 범법자들에 대한 보도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역시 희생자로서 묘사하는 반면, 여성 범법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는 독점욕이 강하고 비이성적이며, 외도를 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된다고 말한다. 특히 치정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남성들은 강한 힘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나, 여성은 악하고 계산적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었다(Carl, 2003에서 재인용).

이처럼 여성이 관련된 범죄보도는 특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자신은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성범죄를 보다 심층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데 무관심하다. 영국의 성범죄 보도를 연구한 수틸과 웰비(Soothil & Walby, 1991)는, 성범죄 보도는 사회 내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 대체로 표피적인 현상보도에 그칠 뿐, 구조적인 시각에서의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기사에 나타나는 여성이 매우 획일화된 틀에 의해 재단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말해준다. 뉴스에 나타나는 젠더담론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다수 축적이 된 반면, 국내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소수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김훈순(1998)은 뉴스 앵커, 뉴스 취재기자, 뉴스위 등 뉴스의 등장인물에 나타나는 남녀간의 불균형에 초점

을 맞추었다. 그 결과는 서구의 기존 연구와 다르지 않은 여성의 상대적 부재 및 관습화된 남성시선 속에 재단된 여성상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하게 성범죄 보도에 대한 연구를 내놓고 있는 유선영(1996, 1999, 2002)은 성범죄 보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에 걸쳐 4개의 한국 종합일간지에 실린 강간, 어린이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추문 등의 성범죄 기사를 병행 검토하였다. 대체로 가해자 행위 중심의 서술, 그래픽 묘사의 관음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경찰의 시선의 반영 등 한국 언론의 성범죄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남성적 시선 등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비전 뉴스의 매매춘관련 보도를 분석한 김선남(2002)은 매매춘 보도가 사건에 초점을 둘 뿐 심층적인 접근을 결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점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중시하여 사회적 관점보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결하지 못한 여성을 일탈자로 위치시켜 여성을 비난하는 이른바 ‘희생자 비난’에 충실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직접적인 여성관련 범죄보도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국 신문의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박용규(2001)는 범죄보도의 양이나 내용에는 작은 변화가 보이나 표현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기사의 선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의 범죄보도 연구는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성범죄 뉴스 또는 텔레비전 매매춘관련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에 제한되어 있다. 한국 언론이 구축한 범죄뉴스의 젠더담론의 지형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체계적인 연구물의 축적이 요청된다.

## 2) 뉴스 프레임과 담론권력

최근 언론학계에서는 뉴스미디어가 뉴스의 어떤 측면을 선택(selection)하고 부각(salience)시키는가에 주목하는 뉴스 프레임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뉴스 내용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저널리즘 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시작한 뉴스 프레임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활발하게 개선되었다(이준웅, 2000).

프레임이란, 고프만(Goffman, 1974)의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정보나 사건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한 면을 선택하여 주의를 돌리게 하며, 동시에 현실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Entman, 1993). 즉, 우리에게 인식된 현실 속에서 몇 가지 측면을 선택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같은 이슈라 할지라도 특정한 맥락과 관점에 따라 전체적인 뉴스의 전개가 달라지며 해석과 뉴스 프레임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의 프레임링 과정을 밝혀내는 작업은 뉴스가 뉴스 조직의 규범과 제작자들의 인식 속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취사·편집되어 특정한 현실을 구성해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60년대 신좌익 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한 기틀린(Gitlin, 1980)은 뉴스가 신좌익 운동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집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뉴스가 이러한 프레임으로 구성한 현상유지적인 담론은 신좌익 운동을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김훈순, 1998에서 재인용).

소련의 대한항공 KAL기 격추사건과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에 관한 미디어 보도 양식을 비교한 엔트만(Entman, 1991)은 사건의 특징에 따라 유사한 현실이 서로 다른 담론으로 제시됨을 밝혔다.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은 민간인 희생자를 부각시켜 소련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성한 반면, 미국의 이란기 격추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였음을 부각시켜 자국을 옹호하는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뉴스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의 하나인 뉴스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쇼펠레(Scheufele, 1999)는 언론인의 개인적인 차원과 미디어 조직

의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 등이 프레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직접적인 뉴스 생산자인 언론인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태도, 그리고 내면화된 전문적인 규범 등에 근거해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로 뉴스조직의 형태나 특정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 등이 프레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광범한 맥락에서 정치인, 정부, 이익집단, 엘리트 집단 등이 미디어의 프레임 결정 및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프레임은 단순한 언론인 개인이나 미디어 조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와 연관되는 보다 광범하고 인식론적인 논의로 확장 가능하며, 공적으로 구성되어 유포되는 담론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한 주제이다. 그동안 프레임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대부분의 뉴스 프레임이 주류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엘리아슈(Eliasoph, 1988)은 기자들의 일반적인 취재관행은 새로운 시각의 보도 대신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지배계층의 의견을 인용, 부각시킴으로써 뉴스를 지배계층의 시각에 맞춰 보도하게끔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주류의 시각만이 부각될 뿐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으로서 뉴스가 여성을 어떻게 표상하며 그 의미를 어떻게 틀짓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회면에 게재된 범죄뉴스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뉴스를 연구대상으로 프레임분석을 하였다. 뉴스조직의 형태나 특정 미디어의 정치적 성향 등이 프레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참고로, 두 신문은 상대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와 정치

성을 지향하는 대표적 신문으로서 젠더담론의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반면에 두 신문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는 한국 언론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임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은 2000년 9월 1일에서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2년간의 사회면 기사로서 KINDS 기사검색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동일한 범죄사건으로 후속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독립적인 기사로 취급하였으며 여성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 등장하는 범죄뉴스만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가 2년 동안의 범죄뉴스를 분석자료로 삼은 이유는 1개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후속보도가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20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을 틀짓는 범죄뉴스의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을 추적하여 젠더담론을 살펴보려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검색결과 분석대상인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범죄기사는 총 265개로, 《조선일보》 124건 그리고 《한겨레신문》 141건이었다.<sup>3)</sup> 범죄뉴스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을 다루는 시각에 주목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피해 범죄의 유형별로 또는 기사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모든 범죄기사를 전체 텍스트로 하여 신문사별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많은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 피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기사의 형식적인 틀을 분류하였다. 연구

3) 기사의 내용은 성범죄가 109건(조선 49, 한겨레 60)으로 약 41%를, 다음으로는 사고사 68건(조선 27, 한겨레 41)으로 약 26%, 피살 40건(조선 23, 한겨레 17)으로 약 15% 순이었다. 여성 피해자 관련 범죄는 유형과 관계없이 성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또한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보도는 여성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기사 형식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체의 88%(조선일보 111건, 한겨레 123건)를 차지했고, 기획·연재(조선일보 8건, 한겨레 8건), 가십(조선, 한겨레 모두 4건씩) 등이었다. 이와 같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두 신문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인 범죄보도에 적절한 틀로 판단되는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에 따라 분류하였다(Iyengar, 1991).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이슈를 개별화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및 문제로 묘사하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뉴스 구성 방식이다. 이에 대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이슈의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둘째,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을 취하는 기사들이 각각 여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을 수행하는 데 드러나는 일반적인 기제들(frame devices)을 분석하였다. 두 신문 사이의 분석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앞선 범죄보도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기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랜 기간 동안 보도되어 후속보도가 제일 많았던 ‘하양 살인사건’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후속보도의 프레임이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프레임으로부터 지속/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두 신문이 생산하는 젠더담론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자료인 기사의 인용문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주로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 4. 범죄뉴스 프레임과 젠더담론

##### 1) 범죄뉴스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

분석대상 기사들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233건(조선 110, 한겨레 123)으로 약 88%였으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사건을 제시하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총 32건(조선 14, 한겨레 18)으로 약 12%였다. 두 신문 모두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주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성이 떨어지면 기사가치를 잃는 사건·사

고 기사의 특성상 사회면은 빠른 시간내에 기사작성이 가능한 스트레이트 형식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이트 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 뉴스는 범죄사건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 없이 단순보도 형식으로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면의 여성 피해자가 관련된 대부분의 뉴스에서 사용하는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은 제머슨과 캠블(Jamieson & Campbell, 1988)이 지적했듯이 범죄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나 영향을 구조적 차원에서 평가하기보다 개별화된 한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개인화’, 사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영화나 소설 처럼 갈등을 제시하는 ‘극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슈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구체화’ 등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김훈순, 1998).

일화 중심적 프레임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기사인 “왜 낙태 안 해, 남고생이 여중생 살해”<sup>4)</sup>(조선, 2001. 11.1.)의 경우는 청소년의 성문제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나 사회적 문제인 낙태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살인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부검결과만을 충실하게 보도하고 있다.

반면에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기획 연재 등 심층기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의 기사들은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원조교제 등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문제,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 이후 성매매 업소의 문제점, 여대생 납치 사건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던 뉴스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문제에 대한 정의, 원인 진

4) ……김 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 학산동 옛 포항중학교 터에서 여중 2년생 정모(14)양과 왜 낙태를 하지 않느냐며 다투다 시멘트 바닥에 넘어진 정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김군은 정양이 임신한 것을 안 지난 8월 말부터 정양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낙태문제를 상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정양은 부검 결과 임신 4개월로 확인됐다

단과 평가, 해결안 제시 등 Entman(1991)의 네 가지 프레임 역할 구조를 대체적으로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김훈순, 1998). 그리고 사건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덧붙임으로써 사건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통계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기사인 “망가지는 청소년/ (상) 등지 등지는 10대”<sup>5)</sup>(조선, 2001.2.22.)는 단란주점 접대부가 된 18세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해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룬 기획 연재 기사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출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다루고 있었다.

## 2) 젠더담론을 생산하는 뉴스 프레임 기제

### (1)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기제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범죄뉴스는 여성피해자를 사회와 신문사 조직, 그리고 기자들이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여성들을 타자화시키고, 남성 가해자보다는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고, 범죄대상의 약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선정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의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은 같다.

- 
- 5) 18세 은하는 가출소녀다. 고2였던 99년 집을 나온 은하는 2년 만에 망가져 버렸다. 현재 직업은 단란주점 접대부……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가족갈등(48.9%)을 이유로 들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친구와 놀기 위해(21.8%), 또는 충동적으로(19.7%) 가출했다고 밝혀 충격을 준다…… 최근 청소년 가출은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장기적 가출이 특징이다. 월세 쪽방이나 PC방이 널려 있고, 원조교제나 접대부, 빠르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금명자 상담심리학 박사는 이들을 학교와 가정에 강제로 데려오더라도 가출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시 가출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갈등 해소 방법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① 기부장적 시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창문이기보다는 현실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한 사회 내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틀에 의해 뉴스는 선택되고 강조되어 생산되며, 이는 뉴스가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진 관점이 아닌 사회 내의 시선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 관련 범죄기사의 경우 피해자를 기술할 때, 객관적인 시선이 아닌 기자의 남성적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육’을 보여 ‘몸 뺏겨’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이 강간의 피해자가 됨으로 인해 더럽힘을 당했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뺏겨’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등 기부장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관찰자로 개입된 기자의 뉴스를 읽는 독자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시선이자 관찰자의 시선, 더 나아가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기부장적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충실한 사건 재현과 몸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여성 피해자는 더럽혀진 육체를 가지게 된 존재로 낙인찍힌다.

대표적인 예로 “고리사채에 만신창이 된 20대 여자”(한겨레)<sup>6)</sup>라는 기사는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 의해 티켓다방에 팔려간 여성을 다루고 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신창이(滿身瘡痍)’라는 용어는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고통이 많다는 뜻을 동시에 내포한다. 결국 이 말은 젊은 20대 여성이 고리사채 때문에 매춘업소까지 가게 되면서

6)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두려워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계에서는 사채빚 150만원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뒤 돈을 갚지 못해 티켓다방으로 팔려간 김아무개(21 여) 씨가 울먹이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김 씨는 사채업자에 의해 450만원에 충남 당진군에 있는 티켓다방, 5일 뒤엔 510만원에 경기도 양평의 티켓다방으로 팔려갔다.”—한겨레(2001.4.11.)

몸이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을 가부장적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여성 피해자 타자 만들기

사회면의 범죄 기사는 매우 짧고 간결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니멀리즘 서사 형식’(Dahlgren, 1988)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기본형식인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범죄행위만을 기본적인 사실로 다룬다. 특히 피해자의 견해나 정신적인 피해 등을 모두 배제된 채 단지 경찰조서에만 의존해서 쓰는 보도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게 된다.<sup>7)</sup>

따라서 뉴스는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의 입장만을 선택하여 강조할 뿐 피해자 입장에서의 상처나 후유증은 언급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사항을 없애고 기본만 다루기 때문에 뉴스의 주체는 가해자가 되고 여성 피해자는 익명의 대상자로만 등장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곧 여성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에 대해 진술하는 가해자의 멘트는 범죄기사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피해자측의 멘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선영(1999)의 성범죄 연구에서도 지적됐듯이, 기사 속 가해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피해자는 수동적이며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사건 속에서 철저히 타자화된다.

대표적인 예로 “마취용 수면제 먹여 여대생 10명 성폭행”(한겨레)이라는 기사<sup>8)</sup>는 가해자인 안아무개 씨의 범죄행각을 추적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심

---

7) 신문 사회면의 범죄뉴스기사가 관행적으로 경찰조서에 의존하여 대부분 작성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고, 기존의 연구(유선영, 1999)에서도 지적된 사실이지만, 이 연구를 위하여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8)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과외교습을 미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두 28명의 여대생에게 강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도미컴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1200여 만원을 빼앗고 이들 가운데 10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 강간 등)



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안씨가 사용한 도미킴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약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 고향에 내려왔다가 성폭행의 봉변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사건에서 사라지고 단지 가해자와 약품만이 중심이 되며 심지어 몇 알 먹었다는 것까지 보도한다. 이것은 뉴스가 정형화된 기사작성법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어떻게’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법을 불필요하게 상세히 드러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여성 피해자 비난하기

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되어온 원조교제는 성인어른이 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금품을 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성이 어른으로부터 유린당한다는 점, 사회적 폐해와 후유증이 치명적이라는 것 등 많은 이유에서 원조교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선정성을 강조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신문에서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오히려 식상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훨씬 흥미로운 뉴스가 된다.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청소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 피해자에 비해 더 자극적이고 세세한 정황 묘사를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원조교제 관련 기사에는 ‘피어’, ‘시커’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적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

또한 원조교제에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청소년이 아닌 어린 여성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성인 남성들이지만, 많은 원조교제 기사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돈 궁하면 원조교제”

---

로 안아무개(4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를 당한 여대생 대부분은 거울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7대, 8대 등 서울 지역 명문대 학생이었다. 도미킴은 수술이나 수면 내시경 등을 할 때 마취제로 사용되며, 극심한 수면장애 환자만 하루 1~2알씩 먹도록 처방되는 약이다…….”—한겨레 (2001.1.5)

(조선, 2001.2.23.) 기사는 원조교제를 어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틀짓고 있으며, 원조교제 성매매의 주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특히 “과의 해줄게…… 원조교제하자”(조선, 2000.12.18.)<sup>9)</sup>는 기사 내용은 대부분의 범죄기사가 가해자 중심의 서술인데 반해 여고생을 원조교제의 주체로서 부각시키고, A양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한 몇 남성들이 마치 여고생의 영악한 계산에 이용당한 것처럼 묘사한다.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명문대 출신임을 내세우며 과외를 미끼로 성매매를 자행한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유혹에 넘어가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A양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④ 약자로서 여성피해자 강조하기

사회면의 범죄뉴스에서는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이 주로 사건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그 중 여성 피해자 관련 범죄는 강도, 살인, 폭력 등과 함께 대부분 성범죄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된 여성은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가지기 때문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 내의 문제로 인해 성범죄가 유지되고, 은폐되고 있는 사실은 간과하고 오로지 여성의 취약성만을 강조하고 여성이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연쇄 강도·살인·강간 사건 등을 서술할 때 여성만을 골라 범행한다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범행 대상은

9) “과의 교습을 미끼로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명문 대학·대학원생들과 여고 2년생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하숙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 2년생 A(17)양에게 수학과 과학탐구를 6시간 동안 가르쳐주겠다며 성관계를 갖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눴던 뒤 명문대생을 선별해서 원조교제를 했으며 특히 지난 10월 허순에는 정씨의 하숙방에서 원조교제한 뒤 이어 같은날 밤 돈을 받고 S대 박사과정 김씨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조선일보(2000.12.18.)

언제나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준다.

3인조 강도들의 행각을 다룬 뉴스보도<sup>10)</sup>는 “여성들만 있으면 강도로 돌변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비디오로 찍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여성은 쉬운 범행 대상이며 성폭력과 연계됐을 경우에 사건 은폐가 용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⑤ 선정성 강조하기

언론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과 같은 성범죄 관련 뉴스를 선호한다. 새롭고 정보가 확실한 것을 다뤄야 하는 신문의 속성으로 인하여 선정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성범죄는 사회면의 양념처럼 실리게 된다. 한계상태에 다다른 독자시장과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신문사간의 치열해지는 경쟁은 결국 상업주의 강화에 힘쓰게 된다. 따라서 선정적인 제목을 뽑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대목이나 충격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사건 자체를 왜곡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는 빠지거나 축소되고 흥미위주의 기사로 전락해 성폭력의 본질 또한 흐려진다.

대표적인 예로 성폭행을 목표로 한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다룬 “고창 엽기적 연쇄살인”(조선<sup>11)</sup>)은 범죄 묘사에 충실한 기사이다. 엽기적인 연쇄살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이미지를 주면서 뉴스는 피해 여성

10) “대기업 및 중견 기업체의 대표·임원들 집을 돌면서 강도 행각을 벌여온 3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들만 있는 것이 확인되면 강도로 돌변했으며,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어느 집에선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미리 준비한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다.”조선일보(2001. 10. 13)

11) “전북 고창군에서 최근 두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여고생 등 4명이 참혹하게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박양은 하의가 벗겨지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길이 20cm, 너비 13cm, 깊이 3cm쯤이 예리하게 잘려나간 채 양 손과 두 다리가 소나무 3그루에 묶여 숨겨 있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박양 남매가 살해된 곳에서 5km쯤 떨어진 해리면 평지리 야산에서 정모양이 전라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달 11일에는 무장면과 인접한 고수면 예지리 논바닥에서 박모(여·70)씨가 대각선으로 상체가 절단되고 오른쪽 팔과 목이 잘린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조선일보 (2000. 12. 21)

의 사체에 대해 필요 이상의 세밀한 묘사를 덧붙인다. 피해 여성들의 사체 손상에 대한 묘사에서 살점이 잘려나간 부위가 얼마나 큰지, 상체의 절단이 어느 방향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적인 정황 묘사에 불과하다.

## (2) 주제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기제

뉴스를 구성하는 형식은 다르나, 주제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범죄뉴스에서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기사에서 보여주는 여성 피해자를 묘사하는 동일한 기제, 즉 가부장적 시선, 여성피해자 타자 만들기, 여성 피해자 비난하기, 약자로서 여성 피해자 강조하기, 선정성 강조하기 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 중심적 뉴스 프레임의 범죄뉴스가 문제에 대한 정의, 원인 진단과 평가, 해결안 제시 등의 형식적 구성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선 문제제기 중심의 구성의 편향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인터뷰,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시 등 다각적 취재가 활용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 등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상적으로 다루지고 있어 문제제기만 있을 뿐 대안은 부재한다. 즉, 해결책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며 기사 끝에 전문가의 언급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 간단히 실음으로써 설득력 있고 심도 있는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범죄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법적, 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제언 등으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해결책 모색의 노력이 전혀 없이, 모든 사안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상투적 멘트로 기사의 끝을 맺는 것은 심층기사에서 보여주는 ‘대안제시’ 자체가 형식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를 타하는 단순하고 도식적인 결론은, 심층기사가 갖춰야 할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의 본질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3) ‘하양 피살사건’의 사례분석

앞서 살펴본 범죄기사의 프레임과 프레임링 기제를 토대로, 후속보도가 가장 많았던 ‘하양 피살사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여 뉴스 프레임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2002년 3월에 일어난 하양의 피살사건은 범죄의 잔인성,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피해자, 사회적 지위를 가진 범조인 등으로 구성된 주변 인물 등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남자관계가 개입된 복잡한 미스터리 구조로 약 5개월 동안 범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며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총 10건, 《한겨레》는 14건 다루었고,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각각 9건과 13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의 기사는 각각 1건씩이었다. 사건의 추이에 따라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보내던 두 신문은, 사건이 종결된 다음날 주제 중심적 프레임의 기사로서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였다.

#### (1) ‘살인사건’ vs. ‘상류층 여성의 불륜사건’

대부분의 범죄뉴스가 가해자 중심으로 서술되고 여성 피해자는 소외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상류계층인 여성 피해자의 신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피해자인 하양이 미모와 재력, 학력을 갖춘 젊은 미혼 여성이며, 불륜 등의 치정관계가 살해동기로 의심된다는 점 등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밋거리로 작용했다. 또한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동기 추측과 주변 인물 탐색 등의 복잡한 미스터리물의 특성을 갖추어, 언론의 상업주의에 잘 들어맞는 기사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하양의 미모와 재력, 학력 등을 거론하며 하양의 남자관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에서는 첫 보도<sup>12)</sup>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해 E여대, 강남 삼성동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강남의 상류층 명문 여대생’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 다음날의 보도<sup>13)</sup>에서는 ‘뛰어난 외모’, ‘성격이 밝고 남자친구가 많다’, ‘명문대 법대생과의 교제’, ‘현직 변호사와의 맞선’ 등을 언급하며 하양의 남자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뒤로 이어진 몇 달간의 후속보도 또한 하양이 인척관계인 판사와 불륜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상류층의 주변인물 묘사와 남자관계 의혹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sup>14)</sup>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시종 일관 ‘상류층 미혼여성의 남자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불륜’ 의혹을 총 10건의 후속기사 중 절반인 5건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여 이 사건을 불륜사건의 틀로 굳혀나갔다. 심지어 사건 해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양의 주변 남성들과의 관계를 도표로 그려 기사 옆에 첨부함으로써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 
- 12) “경기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에서 여대생 하모(23·E여대4·강남구 삼성동) 씨가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씨는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손발이 빨갛줄에 묶여 쌀포대에 담긴 상대였으며, 이날 오전 9시쯤 한 등산객이 검단산 기슭 등산로 옆 숲속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조선일보 (2002.3.19.)
- 13) “하씨(23·E여대4·강남구 삼성동)는…… 경찰은 일단 하씨가 성격이 밝고 외모가 뛰어나 남자친구가 많았다는 주변 진술을 근거로 애정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씨는 3년 전 대학 MT때 만난 명문대 법대생(27)과 사귀어왔으며 작년 9월 친척 소개로 맞선을 본 현직 변호사와 만나다 헤어졌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2.3.20.)
- 14) “경찰은 지난해 한 중년 부인이 하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며 하씨를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그 동안 청구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었다.”조선일보(2002. 4. 4)  
 “하씨 부모는 경찰에서 작년 이 중년 부인이 딸과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며 딸에게 미행을 따라 붙이기까지 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했었다.”—조선일보(2002.4.27.)  
 “이경사는 작년 3월 초등학교 동창인 윤씨 남편에게서 사위의 행동이 이상하니 미행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이경사와 친분이 있는 경찰 5명이 번갈아 가며 윤씨와 함께 김씨를 미행했다는 것이다.”—조선일보(2002.5.20.)  
 “윤씨는 평소 하씨와 자신의 사위(30)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다. …… 그렇다면 실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조선일보(2002.8.21.)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건 발생시의 첫 보도<sup>15)</sup>와 이어진 후속보도<sup>16)</sup> 모두 기자의 추측을 배제한 채 밝혀진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건의 진전과 새로운 사실의 확보에 따라 후속보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배경이나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이나 자세한 묘사는 없었고 사건의 추이를 충실히 보도했다. 불륜이라는 단어는 14건 중 마지막 단 1건의 기사에서만 등장했으며, 가해자가 불륜을 의심해왔다는 점이 짙막하게 보도되었다.

앞서 《조선일보》가 피해자의 개인적 배경과 남자관계 등 인간관계 위주의 접근방식을 취한 데 비해, 《한겨레신문》은 새로운 단서와 사실 발견을 통해 얽힌 의문들을 해결해나가는 사건 위주의 접근방식으로 대조를 보였다.

## (2) 초기 뉴스 프레임의 강화

두 신문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 사건을 보면 일회성으로 보도되고 마는 일반 범죄사건과는 다르게 사건 첫날부터 피해자의 특출한 외모와 배경 등 선망받는 외부 요건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연이은 후속보도에서 더욱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건의 객관적인 보도에 상대적으로 충실했던 《한겨레신문》과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이 사건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왜곡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15)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군 김단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여대생 하야무개(21) 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하씨가 머리 등에 공기총 6발을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한겨레(2002.3.19.)

16) “경찰은 하씨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발견됐으나, 외상이나 성폭행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하씨를 살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겨레(2002.3.21.)

“속보= 범행 시간을 전후해 특정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중시해, 이 사람이 살인을 청탁했거나 제 3의 인물한테서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씨와의 관계 등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한겨레(2002.4.25.)

《조선일보》의 첫 보도(3월 19일자)에서 하양을 묘사한 “강남 부유층 E대생”의 라벨은 다음날 “뛰어난 외모, 명문대 법대생과 현직 변호사 등과  
의 교제”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후속보도에서 “유부남과의 불륜이  
의심됨, 복잡한 남성관계”가 추가되었다. 5개월 동안 수사가 진전되고 언론  
또한 즉시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선정적인 시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불륜에 대한 언급은 가해자의 일방적  
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조선일보》는 ‘치정 불륜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다루었으며, 진상이 밝혀진 마지막에 가서야 ‘오해가 부른  
청부극’이라는 결론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결국 연이은 후속보도를 통해 사  
건 초기 “살인사건의 피해자”로서의 하양은 사라지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강남 부유층 미혼여성’만이 남아, 계층과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만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살인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을 꾸준히 견지했으며,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했다. 마지막에 가서야 가해자  
의 잘못된 오해가 ‘불륜’에 대한 의심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사건 전체를  
바라봄에 있어 추측과 상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피해자의 계층이나 애정  
문제 등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조선일보》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반적인 사건지향적인 틀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점차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도하는 경향  
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두 신문 모두 초기 기사에서 형성된 틀이 보다 강화되는 추세  
를 보이는 가운데, 틀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단서  
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이미 형성된 틀에 맞추어 후속 기사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보다 여성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와  
관음적인 시선, 피해여성 비난하기 등 왜곡된 젠더담론의 형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성을 띤 《조선일보》의 경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 시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진보성을 띤 《한겨레신문》은 정도가 덜 했지만, 여전히 순결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표현의 답습이나 ‘남성적’ 서술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이 연구는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와 정치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회면에 게재된 여성피해자가 등장하는 범죄뉴스를 분석했다. 두 신문의 뉴스프레임 형식과 기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채택한 대부분의 스트레이트 기사들은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제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남성 필자의 가부장적인 시선, 둘째,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셋째, 피해여성 비난하기, 넷째, 범행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다섯째, 불필요한 자극적인 세부묘사를 통한 선정성 강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뉴스프레임을 따르는 범죄기사는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의 정의와 원인 진단, 평가와 해결안 제시 등을 다룬 심도 있는 심층기사는 거의 없었고,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기사 말미에 몇 줄의 평가나 제언이 첨부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이라고 분류된 기사라 할지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기제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을 채택한 기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선정성의 부각과 구체적인 처방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심도 있는 논의가 결여된 채 그저 사회구조를 탓하거나 전문가의 한두 마디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등의 표피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후속 보도가 진행된 경우 프레임의 변화추이를 하양 피살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5개월 동안의 프레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이 전환되거나 대치되는

대신 더욱 선정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묘사가 “남자관계가 복잡한 미모의 강남 여대생”이라는 라벨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으며, 후속 보도는 피해여성의 남자관계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채워졌다. 사건이 종결된 후 주제 중심적인 뉴스프레임으로 사건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보도된 것이 변화의 전부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건 발생 즉시 설정된 프레임이 후속 보도에서 대체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프레임이 고수되면서 보다 정교화되는 작업만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최초의 프레임이 후속보도에서 고착화되는 사실은, 언론의 초기 가치판단이 전체 뉴스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임을 알려준다. 신속한 기사작성이 요구되는 사회면 기사는 이미 내재된 가치관에 의해 프레임의 선택과 설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후속 보도의 프레임 연구는 바로 한국 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남성 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획일적인 뉴스 제작 관습과, 남성기자과 남성적인 뉴스 조직의 가치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 중심의 사건 서술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뉴스 취재관습이며, 여성을 묘사할 때 상투적으로 나타나는 선정적이고 타자화된 보도는 남성적인 뉴스 제작 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찰과 뉴스 조직의 프레임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관점에서 잘 부합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프레임이 만났을 때, 범죄뉴스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가부장적이고 선정적인 여성묘사를 반복하는 견고한 프레임을 형성하게 된다. 그 외에도 객관성과 사실성을 가장한 육하 원칙의 기사쓰기 관행과 선정성을 지향하는 상업주의적 뉴스가치의 판단기준도 이러한 현상을 강화시킨다.

특히 분석대상이 된 두 신문은 정치적인 노선에서 차이를 보임에도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심층보도나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았다는 점 외에, 여성에 대한 선정적 보도방식이나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한 남성적인 관점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

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내신문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고 고급신문을 지향한다고 자임하는 《조선일보》와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한겨레신문》은 대표적인 한국의 언론사로서 모두가 젠더 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며 관음적인 시선과 여성에 대한 선정적 묘사로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다양한 범죄뉴스를 대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1994-1996년의 성범죄 기사를 분석한 유선영(1999)의 연구와 매매춘 보도를 분석한 김선남(2001)의 텔레비전 뉴스 연구의 결과를 일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 언론보도의 남성편향적인 경직된 뉴스취재체계와 뉴스제작 관행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선정성을 지향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6-2호, 41-76.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담론: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46호, 138-163.
- 김훈순 (1999). 텔레비전 뉴스의 젠더 구조와 그 의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나남출판사, 59-94.
-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유선영 (1996). 성범죄 보도 개선방안-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 연구: 정책보고서 96-II』, 6호, 한국언론연구원, 149-210.
- 유선영 (1999). 객관주의의 시악한 시선: 남근중심주의. 『언론과 사회』, 25호, 7-54.
- 유선영 (1999). 성범죄 보도가 구성하는 여성 신화. 『대중 매체와 성의 정치학』 나남 출판사, 95-144.

- 유선영 (2002). 『여성과 언론-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2.
- Carll, E. K. (1999). *Violence in Our Lives: Impact on Workplace, Home and Community*. Boston: Allyn & Bacon.
- Carll, E. K. (2003). News Portrayal of Violence and Women: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2), 1601~1610.
- Dahlgren, P. (1988). Crime News: The Fascination of the Mundan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3, 189~206.
- Eliasoph, N. (1988). Routines and the Making of Oppositional New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5(4), 313~334.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38.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Gilliam, Franklin D., Jr. & S. Iyengar (2000). Prime Suspects: The Influence of Local Television News on the Viewing Publi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560~573.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Holland, P. (1987). When a Woman Read the News. in H. Baehr and G. Dyer(eds.), *Boxed In: Women and Television*. New York: Pandora Press, 133~150.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 of Chicago Press.
- Jamieson, K. & Campbell, K. (1988). *The Interplay of Influence: Mass Media and Their Publics in News, Advertising, Politics*. Belmont.

- Lemart, J. B. (1989). *Criticizing the Media: Empirical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 Lundman, R. J. (2003). The News Worthiness and Selection Bias in News About Murder: Comparative and Relative Effects of Novelty and Race and Gender Typifications on Newspaper Coverage of Homicide. *Sociological Forum*, 18(3), 359~386.
- Madison, J. H. (2001). *A Lynching in the Heartland: Race and Memory in America*. New York: Palgrave.
- Meyers, M. (1997). *News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an: Engendering Blame*. Thousand Oaks, CA: Sage.
- Oliver, P. E. & Meyer, D. J. (1999). How Events Enter the Public Sphere: Conflict, Location, and Sponsorship in Local Newspaper Coverage of Public Ev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38~87
- Pagelow, M. D. (1981). *Women Battering: Victims and Their Experiences*. Beverly Hills, CA: Sage.
- Rakow, L. F, Kranich, K. (1991). Women as Sign i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8~23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103~122.
- Schwengels, M. & Lemert, J. B. (1986). Fair Warning: A Comparison of Police and Newspaper Reports of Rape. *Newspaper Research Journal*, 7, 35~42.
- Soothill, K., & Walby, S. (1991). *Sex Crime in the News*. London: Routledg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 Free Press.
- Van Zoonen, L. (1988). Rethinking Women and the New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3(1), 35~53.
- Zoch, L. M. & Turk, J. V. (1998). Women Making News: Gender as a Variable in Source Selection and Us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4), 762~775.

# Gender Frames of Korean Newspapers

## Women in Crime News

Hoon-Soon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scourse of Korean newspaper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the frames of crime news on Chosun Daily and Hangyurae Newspaper for 2 years. The data are collected using KINDS, and include 265 crime articles involving wom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episodic frames are used in the most of crime news. The five frame devices are founded in the episodic frame articles; the male subjectivity and the female objectivity, the male-oriented perspectives which reporters have, the abused sexual details and sensationalism, the emphasis of women body's fragility which imply woman's unavoidability as victims, and finally, blaming women who are victims of crimes. And in the articles of thematic frames, the similar frame devices are found. In particular, they only emphasize the problem of crime and fail to suggest a concrete resolution.

Finally, the study discusses the findings relating to the patriarchal news making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ism of newspaper industry. The two newspapers have been pursuing quite different political lines in Korean society.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Hangyurae newspaper is progressive and Chosun Daily is conservative.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way dealt with women in the crime news are not different. It is concluded that Korean newspapers still produce the gender discourse based on male-centric perspective and patriarchal ideology.

Keywords: Crime News, Gender Discourse, News Frame, Newspaper